

3. 도시 공공디자인 시설물과 조명

Urban public design for establishment and lighting

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즘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는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목 차

1. 도시야간 조명과 환경
2. 도시환경과 조명의 역할
3. 도시공공 디자인 시설물과 조명
4.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

필자 : 손장복, 현 동양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by Sohn, Jang-bok



- 한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 이사, 조명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 한국 도시경관학회 부회장
- 한국 IBS 코리아 협회 이사
-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인천시 경관 위원회 위원
-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심사위원

3. 도시 공공디자인 시설물과 조명

도시 공공디자인 시설물이란 도시내에 있는 조경시설, 안내시설, 휴게 시설, 편익시설 등 도시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해당 된다고 봐야한다.

도시공간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은 쾌적한 도시인들의 삶을 유도하고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연속성이 작용하여 이를 통해 그 도시에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 도시 공공 시설물과 조명의 관계는 어떻게 연속되며 연계되어 있는 것일까? 우선 사람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시각적 위계(Visual Hierarchy)의 최상위는 나 자신 이외의 또 다른 사람의 존재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대상 일 수 있다. 광원에 의해서 야간에 사람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강제력에 의해 시각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 때문에 도시의 공공시설물과 야간 경관의 조명 계획은 매우 중요한 요

소로 작용될 수 있다.

주간 시간대에 보여지는 모든 도시의 공공 시설물이 과연 야간 시간대에 어떻게 보여져야 하고 인식되어 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주간에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우리 시야에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 질수 밖에 없지만 야간에는 빛의 강조와 삭제를 통해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변 상황의 특징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가진 시설물은 야간조명 연출시 그 중요성이 더 강조 될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도시민들의 심리적 반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 공공 디자인 시설물을 조명할 때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도로(A road)

도로조명을 교통사고 방지가 최우선이며 가로 및 통로의 조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도로의 조명은 그 도시의 전체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거리의 미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나트륨이나 수은등보다는 연색성이 높은 메탈 계열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수변을 가진 도시의 경우는 휘도를 생각해서 나트륨 정도는 고려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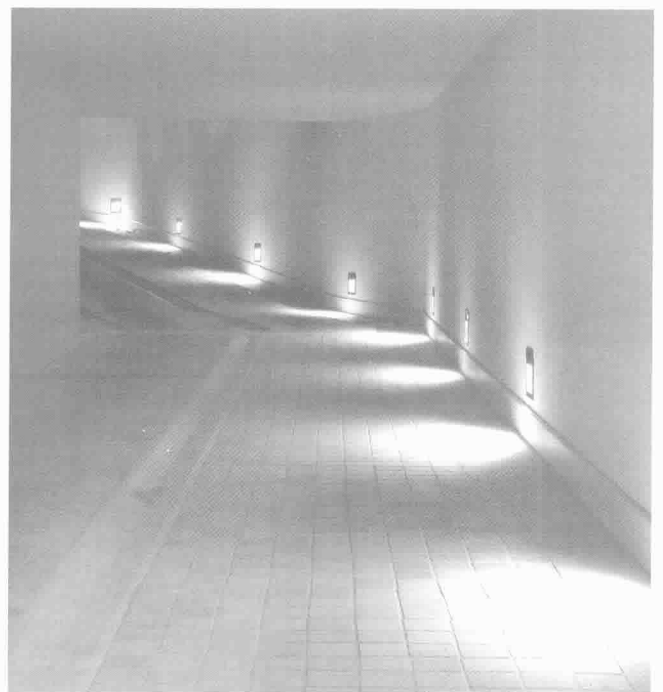
또한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가로등의 균제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광원의 용량이나 높이 간격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Underground)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간이 지하도가 아닐까 싶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의 연계와 함께 지하상가들이 활발하게 계획되어지고 있다. 또한 지하 공간은 환경적 특성상 24시간 점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명에 대한 계획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국내 지하철 운영계획에는 문화공간을 계획하고도 있을 정도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보여진다. 이런 공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일 것이다.

유도등이나 비상등을 잘 계획하고 화재나 재난에 대비하고 활동성 있는 문



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색성이 높은 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조경 수목(Plant Material)

조경이나 수목의 조명계획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목의 전체 모양과 줄기등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달리 보일수도 있다.

때문에 나무나 줄기의 특성(밀도, 색, 모양)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부터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각물 (Sculptures)

도시는 돌아보면 그 도시안에 건축물이나 조각물등이 중요한 위치의 공공



시설물로 자리잡고 있을 수 있다.

사실 조각물은 일반 도시인들에게는 대중적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일 수 있다. 따라서 업라이트(Up Light) 또는 다운라이트(Down Light) 등의 연출방법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그림자와 빛을 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질에 따라 광원의 선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여야 한다.

수-공간(Water Feature)

도시 공공시설물중 수-공간을 가진 분수라든가 공원 같은 공간은 관리의 편이성이 제일 많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의 조명 계획은 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빛의 굴절현상과 수중에서의 감쇄현상(10%/5cm)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명계획시 기포라는 요소가 강조되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위해서는 물이 부딪히는 지점 앞에서 조명이 연출되어 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것이 유리하다.



안내시설(Information establishment)

안내시설은 도시 공공시설물 중 그 도시의 방향성과 유도 및 안정을 위한 시설물로서 그 도시를 빠르게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간에는 잘 보여지던 안내시설이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다.

안내시설이나 표시판 등을 눈에 잘 띄게 설치하고 조명계획에서도 조도를 높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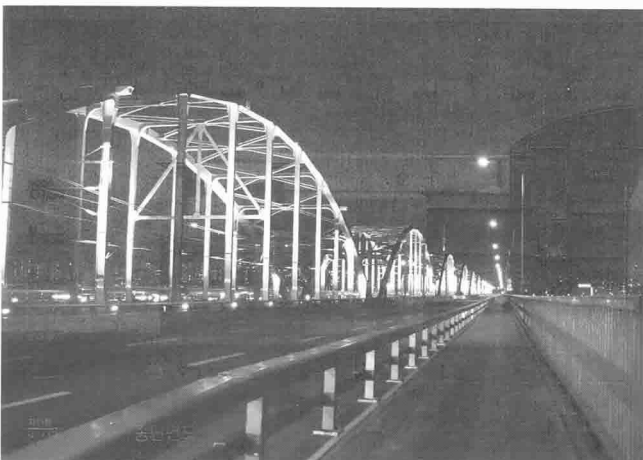
휴게시설(Rest establishment)

휴게 시설은 도시의 편안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므로 가급적 높은 조도나 휘도 보다는 낮고 부드러운 간접조명을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시인들의 바쁜 일상에서 유일한 여유가 있는 공간이며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는 높은 휘도를 사용시 감성적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낮은 밝기의 조명 계획이 좋다.



교각조명(A pier lighting)

교각은 도시의 부분 부분 나누어진 형태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 다. 때문에 야간시 교각은 수직적 요소 보다는 수평적 요소를 강조하여 교각



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인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각의 환경이 수변이라면 나트륨 광원을 이용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좋고 지면이라면 연색성이 높은 MH Lamp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각은 안전성에 민감한 만큼 조도나 휘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교통사고나 범죄율을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 조명(Toilet lighting)

공원이나 거리 광장 건축물 등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이다. 때문에 장소성이 크게 2가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거울이 있는 부분은 화장이라든가 옷매무새를 고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밝은 조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소변이나 용변을 보는 변기가 있는 곳은 너무 밝지 않은 적당한 밝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도시의 공공시설물에는 공중전화 Box나 휴지통, 벤치, 공원, 편익시설 등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도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그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소수에 개성 있는 장소 보다는 대다수가 함께 안전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공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특정 공간을 위한 특화된 개성 있는 형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준비된 시설물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며 소수 특정인을 위한 공간은 공공시설물 설계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교각에 색을 입히는데 예술적 입장에서 붉은색이나 금색 등 강한느낌의 색을 강조했다면 매일같이 보고 지나가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싫어하는 색이거나 싫증나는 색일 경우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시설물은 대다수의 공감이 중요하다.

도시는 노인, 어린, 여성, 남성, 아이들 등 연령이나 성별 각각의 직업, 신체 의 조건 등이 모두 다르다. 이렇게 각각의 특별한 조건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좀 더 서로가 배려하는 국민의 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제 우리의 경제는 2만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 형으로 발전되어 가고 지적 수준이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욕구도 다양해지고 정보관측도 높아지면서 사회 측면에서 볼 때 공공성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가로등 격등제라든가 경관조명의 조기 점멸등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도시가 어두워지고 활달한 감이 떨어지고 엄숙하고 차가운 느낌마저 들고 있다. 도시가 어두워진다는 것, 사실 도시민들은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절제하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감성으로 인해 우울해지고 범죄율이나 위험적 요소가 높아지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게 될 것이다.

빛은 긍정적 사고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도시가 밝고 쾌적한 긍정성을 강조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는 아니한가 생각해 본다. ■